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 16만톤 상회

환경부, EPR 시행 1년 목표량의 103% 달성 ... 적용대상 추가 확대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15개 중 4개 품목이 시행 결과 목표량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EPR 시행 1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총 15개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은 104만5000톤으로 총 재활용목표량 102만2000톤 대비 10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폐기물예치금제도 시행시기인 2002년 94만톤과 비교했을 때 약 11% 증가한 것이다.

EPR 대상품목 15개 중 10개 품목이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반면, 4개 품목은 목표량에 미달했으며 1개 품목은 생산이 없어 산정이 불가능했다.

특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전자제품은 평균 27%, 합성수지포장재는 30% 목표량을 초과달성했으나 금속캔, 유리병, 니켈카드뮴, 컴퓨터 등은 목표량 달성에 실패했다.

수은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산화은으로 대체 생산되면서 출고량이 전무함에 따라 산정이 불가해 앞으로 EPR 품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EPR는 각 업종에서 재활용목표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량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또 시행 첫해인 2003년 생산자들이 설립한 재활용공제조합(품목별 11개)이 중심이 돼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설치 및 홍보 등 재활용 기반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재활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금속캔, 유리병, 컴퓨터 등은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에 따른 출고량 감소로 목표량을 달성치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활용 의무 이행실적(2003)

(단위: M/T, %, 1000원)

구 분	의무총량	재활용량	달성률	재활용부과금	
전 체	1,012,091	1,044,994	103	5,674,759	
종이팩	15,845	17,171	107	104,685	
금속캔	184,772	160,349	86	2,716,628	
유리병	313,005	295,233	94	1,296,559	
합성수지 포장재	128,284	167,648	130	1,406,045	
윤활유(kℓ)	140,701	151,071	107	780	
타이어	183,269	195,010	106	12,739	
전자류	수 은	-	-	-	출고량 無
	산화은	1	1	100	11,580
	리튬	41	55	134	4,283
	니켈카드뮴	102	80	78	29,044
전자제품	텔레비전	8,794	10,360	117	6,812
	냉장고	17,829	24,801	139	23,932
	세탁기	15,615	19,215	123	21,549
	에어컨	621	846	136	2,112
	컴퓨터	3,212	3,154	98	38,011

† 수은전지는 출고량이 없어 재활용 의무량 미설정

환경부는 전체 1897사 중 710사 및 3개 공제조합이 재활용 목표량을 미달성함에 따라 해당기업들에게 총 56

억74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키로 했다.

또 2003년 EPR 제도 시행 후 재활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효과를 더욱 높이기 국민들에 대한 홍보, 분리배출·수거체계 및 재활용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에는 EPR 대상품목에 형광등, 필름포장재를 추가했으며, 2005년에는 오디오, 휴대폰까지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13>